

 국토교통부		보 도 자 료		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
		배포일시	2019. 5. 24.(금) 총 3매(본문2)	
국토교통부	철도안전정책과	담당자	· 과장 김 인, 사무관 손상현, 주무관 신수정 · ☎ (044)201-4600, 4601, 4609	
한국철도공사	안전관리처	담당자	· 처장 유종복, 부장 노관효, 차장 박성수 · ☎ (042)615-4186, 4187	
보 도 일 시		2019년 5월 2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. 26.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부, 유관기관 합동 고속철도 대형사고 실제훈련 규모 6.9 지진상황 시 열차탈선·화재발생 가정, 도상훈련도 실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019년 을지태극연습기간인 5월28일 14:00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한국철도공사 강릉차량기지에서 「2019 국가위기 대응연습 고속철도 대형사고 실제훈련」을 실시한다.
- 국토부 주관의 「고속철도 대형사고」 실제훈련은 규모 6.9지진 발생으로 열차 탈선 및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하여, 재난대응역량 강화와 고속철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실효성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.
 - * 5.27(월) 09:30경, 경북 영천일대 규모 6.9 지진 발생, 강원·대전·대구·전북·광주지역에서 고속열차 탈선(5건)을 가정으로 27일 당일에 도상훈련도 실시
- 이번 훈련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, 국방부 등 중앙기관 강원도 등 지자체, 한국철도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약 500여 명이 참여한다.
 - * (참여기관·인원) 우리부(15), 철도공사(133), 철도공단(20), 강원도·강릉시(85), 강릉경찰서(22)·소방서(43), 보건소(20), 군부대(169) 등 500여 명

- 군부대 참여 등 유관기관 간 협력 및 긴급구조통제단·사고수습본부 (중앙·지역) 운영에 따른 지휘체계 점검 등을 통한 실제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하는 등 훈련효과를 극대화하고,
또한, 열차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운행상황 안내방송 지속 실시와 사고 장소 주변 구조물 긴급점검 등 2차사고 방지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.
- 현장훈련은 한국철도공사 강릉차량기지에서 사고발생부터 복구까지 약 50시간의 사고대응 과정을 2시간으로 압축하여 실제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실시한다.
주요 훈련내용은 초기대응팀 구성 등 초동조치, 화재진압, 승객구조·이송, 대체수송, 철도 운행상황 안내, 탈선복구, 구조물 긴급점검 등이다.
- 한편, 국무총리 주재 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회의(영상회의) 중 실제훈련 현장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사고수습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는 이번 훈련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풍수해·지진 등 각종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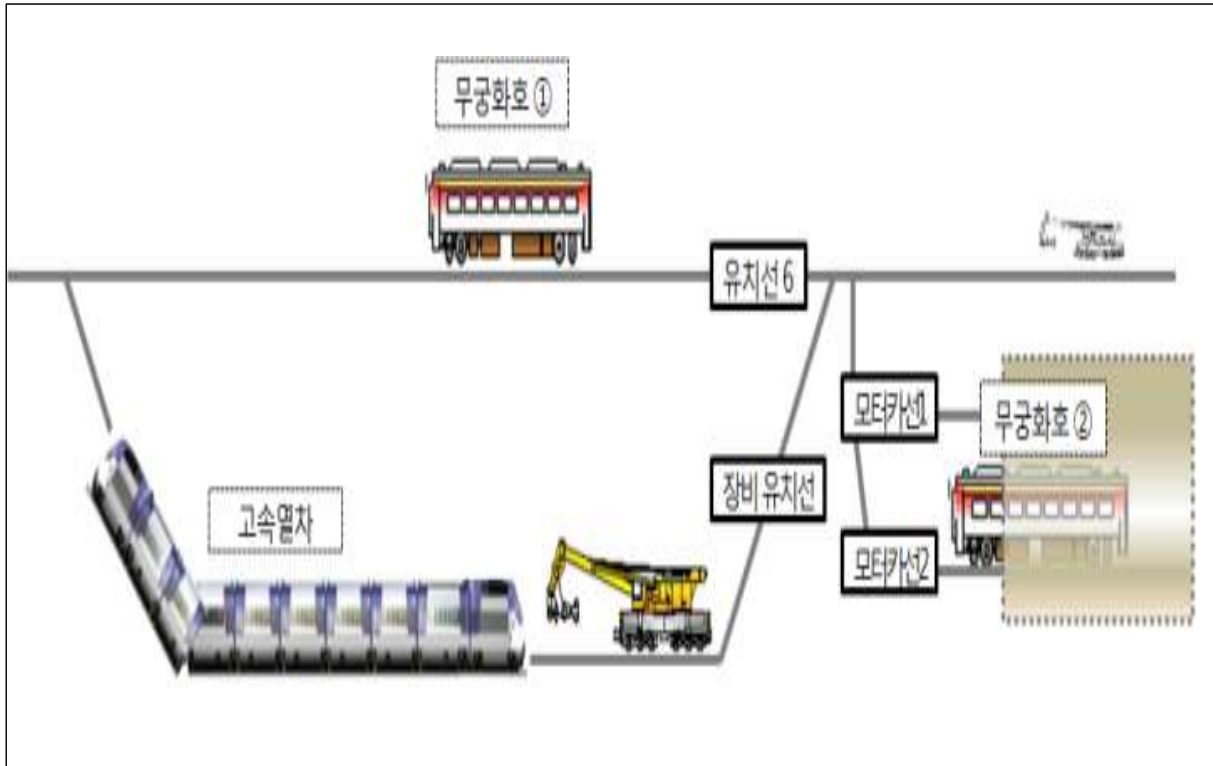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손상현 사무관(☎ 044-201-460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

KTX 탈선사고 실제훈련 배치도 및 전경

□ KTX 탈선사고 발생 위치



□ 실제훈련 장소(강릉차량기지) 전경

